

# 백운 스트리트 푸드존 활성화, 민·관 협력 ‘관건’

추가 모집 경쟁률 반토막에  
점포 폐업 현상까지 벌어져  
남구 “상가로 확장 이전한 것”  
업주 자구 노력 부족도 문제  
홍보·행사 유치 등 협력 절실

백운 스트리트 푸드존이 광주 남구의 새로운 즐길 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장 6개월 만에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용객들은 자치구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경쟁률·매출 ‘뚝’... 위기 직면

1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백운 스트리트 푸드존 빈 점포 5개소에 대한 추가 모집이 마감됐다. 지원자는 9명으로 경쟁률은 1.8:1에 그쳤다.

앞서 개장 전 공개 모집을 진행했던 2021년에는 30개 점포(외식업 24개소·문화예술 6개소)에 85명의 지원자가 몰려 3: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외식업의 경우 24개소 모집에 71명이 모여들었다.

이렇다 보니 ‘점포가 줄폐업하는 등 푸드존이 실패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푸드존은 현재 점포 5개가 폐업한 상태로 출발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푸드존 개장 직후인 9월에는 평일 기준 일평균 7000~8000명이 방문했다. 또 가장 인기를 끈 점포는 한 달 4000여만원의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점포마다 평균 월 800~1000만원의 매출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호황은 길지 않았다. 3개



16일 시민들이 광주 남구 백운 스트리트 푸드존 앞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월 뒤인 같은 해 11월경부터 차츰 손님이 줄어들더니 12월을 넘어서자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후 점포 5개소가 줄줄이 이곳을 떠났다.

이런 탓에 푸드존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구에 문의한 결과 폐점포 5개소 중 문화예술 점포 2개소는 푸드존과 특성이 맞지 않아 입점을 포기했고, 외식업 점포 3개소 중 1개소는 장사가 잘돼 인근 상가로 확장 이전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개인 사정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측은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남구-상인 협력 중요

상인들은 불안한 표정이다. 푸드존에 입점한 상인 A씨는 “오픈 당시에 비해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 재료비 등을 따지면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이에 남구는 최근 상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푸드존 관련 지난 행사들이 단발성이라는 지적에

따라 장기 행사 유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청년 버스킹 축제를 오는 3~4월 중으로 개최해 매주 주말마다 진행하고, 푸른길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를 백운광장 인근에서 열어 푸드존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4000만원 상당의 푸드존 상품권을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구 직원 대상 생일 쿠폰으로 발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푸드존을 활성화할 수 없다.

주민들은 ‘업주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뿐만 아니라 매장 자체적 홍보를 강화하고, 신메뉴 등을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구 주민 박모(25)씨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남구 주민임에도 푸드존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파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다. 홍보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업주는 SNS 홍보 채널을 개설하고, 거리 손님이 줄어든 겨울에는 배달을 시작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배달을 시작한 푸드존 입점 상인 B씨는 “거리 매장 특성상 겨울은 비수기라는 걸 인지하고 배달 장사를 시작했다. 푸드존 매장 중 배달을 하는 곳은 네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겨울 전과 비교하면 매장 매출은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이지만, 배달로는 월 300~400만원 정도 번다”면서 “저렴한 월세 등 남구의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은 행사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C씨는 “구경만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상인들이 함께 매장 공간 연출, SNS 홍보 등에 힘써야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여름, 겨울 등에도 계절성을 고려한 연계 행사를 개최하고, 1년 단위로 행사 계획을 세우겠다. 상인들의 의견도 지속 수렴할 것”이라면서 “상인들도 점포 뒤 벽면에 있는 홍보 공간 등을 활용하는 등 함께 협력해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14건

2021년 1월~지난 14일  
4만2134㎡ 누수 추정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과정 속 14건의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9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총 14건의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있었다.

공구별로는 1공구 4건, 4공구 4건, 6공구 4건, 2공구 1건, 5공구 1건으로 집계됐다. 14건의 상수도관 사고로 인한 누수 추정량은 4만2134㎡이다.

실제 지난 14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남구청-양림휴먼시아) 구간 토목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상수도사업부부는 굴착 장비가 지하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관 연결 부분을 파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손된 관에선 수돗물이 시간당 60톤씩 세 시간 동안 쏟아졌다. 2019년 착공에 들어간 1단계 사업은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까지며, 현재 각종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토목공사 공정률은 50% 수준이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 전 지하 매설물 정보와 도면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 1~2m까지 직접 땅을 파도면에 없는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러나 지하시설물 매장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도면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1단계 공사 진행과 함께 2029년 개통을 목표로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 2단계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지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